

데스크 시각



홍 행 기
정치부장·편집 부국장

요즘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물론 유명 '셀럽'(연예계나 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까지,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이들의 사과와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자와 팬들의 환호에 기대어 '속마음'을 슬쩍 드러냈다가 순식간에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처절한 반성문을 써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도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적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진 듯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정 총리는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에 고소한 전직 여비서를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호칭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피해 호소인

사과와 반성의 계절

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통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가 '호칭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고개 숙인 유명 인사들

요즘 여론의 '대세'로 통하는 이낙연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이천 불우참고 화재 현장에서 '도대체 대책이 무엇이나'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유족들에게 "제가 현재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런 뒤 곧바로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5월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허리를 굽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 라고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

세' 이효리는 이달 초 '취중 노래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데도 노래방에서 술기운에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누리꾼의 지적으로 이슈가 되자 이효리는 이튿날 SNS에 "어쨌든 아직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깊히 반성한다. 요새 내가 너무 들떠서 생각이 깊지 못했다"고 공개 사과했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머리 숙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불뚫처럼 터져 나오는 사과와 반성은 과거에 비해 한층 빨라지고 구체적이며 세련된 느낌이다. 이제는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내용'이나 '수준'을 결정해 주는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사과와 반성의 대상이 거의 모든 사회적 현안과 의제에 걸쳐 있을 만큼 광범위해진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과정

사과와 반성은 요구하는 측에도, 머리 숙여야 하는 측에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몸과 마음에 뜻밖의 상처를 입었기에 힘들고,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이해를 구하며 피해를 복구해야 하기에 어렵다. 용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과와 반성이 불뚫을 이룬다는 것은, 사회적 소통이 그만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의 신념 체계와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사과와 반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생각이냐 행동이 환영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과 행동이 거부되는지가 결정되고 이를 우리 모두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 이른바 시대정신(Zeitgeist, 時代精神)이 형성되는 과정인 셈이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사회·경제·문화적 구조 형성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에 다가온 '사과와 반성의 계절'이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은펜칼럼

고(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기억한다



박 행 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머리글자를 따서 WHO로 부르는데 유엔(UN)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정확하게 17년 전 오늘, 2003년 7월 22일에 이종욱 박사가 제 6대 WHO 사무총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었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 유엔의 날 기념행사 사진에는 50여명 어린이들이 다양한 복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유엔 직원 옷 차림으로 맨 앞줄에 혼자 서 있다. 공대에 입학했으나 군 복무를 마치고 의대에 진학하여 뒤늦게 의사가 되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센병 환자 요양소에서 자원 봉사로 시작한 한센병과의 인연은 1983년, 그를 WHO로 인도했고 백신 프로그

램 책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백신의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취임 몇 달 전인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한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는 야생 동물에 서식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가서 심한 폐렴 증상을 나타내는 새로운 전염병으로 밝혀졌다. 코로나 02인 셈이다.

그가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좋은 일을, 적절한 곳에서, 옳은 방법으로 한다"가 행동 목표였고 삶의 방식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개발도상국 300만 에이즈(AIDS) 환자에게 2005년까지 치료제를 공급하는 '3 by 5' 프로젝트였다. 그 목표치는 2008년에 달성되었다.

그는 2003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서태평양 지역위원회 제54차 회의에서 사스의 재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작금의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가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으로서 전 세계 다은 식견을 가졌음을 세삼 깨닫는다.

사스 발발 1년 후인 2003년 12월부터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사

람으로, 그리고 사람 대 사람 감염을 일으켰다. 감염 종식을 위하여 엄청난 숫자의 가금류들을 살처분했고 이는 거의 매년 되풀이 된다.

사무총장 취임을 전후하여 다친 이러한 위험 상황을 직시한 그는 전염병 발생 현황을 시시각각 살피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상시 운영 체제로써 '전략보건운영센터(SHOC, 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er)'를 출범시켰고 이는 'J W LEE Center'라고도 불렀다.

일부에서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너무 자주 하여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겁준다며 그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의 경고를 심심해서 장난치는 양치기 소년에 빗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아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WHO 대유행 단계'는 6단계로 나뉜다. 동물 바이러스가 인체 위험도가 낮은 1단계부터 가장 위험한 것은 6단계인 팬데믹(Pandemic)이다. 'pan'은 그리스어로 모두, 'demic'은 사람을 뜻한다.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모든, 또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상태이며 우리말로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다.

WHO가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규정한 것은 금년 3월 11일로, 114개국에서 확진자 11만 8천여 명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동안 확진자들은 세계 각국으로 바이러스를 실어 나른 셈이다. 이를 전 통계에 의하면 185개국에서 총 확진자가 1436만 4718명, 사망자가 60만 3872명이었다. 수치는 매일 상승되니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전염병 감염 국가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 WHO는 자동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하고 감염 지역을 봉쇄함으로써 세계적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이종욱 총장의 "좋은 일을, 적절한 곳에서, 옳은 방법으로 한다"는 말의 실천이 새삼 절실하다.

애석하게도 그는 취임 3년 만에 61세의 나이로 임기 중에 뇌출혈로 순직했다. 그의 부재가 어느 때보다 더욱 크게 느껴진다.

기 고

'서인경 공화국'을 아십니까



박 성 수
미래남도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

'서인경 공화국'이라고 들어 보셨는지. 대개들 생소하겠다 싶어 언급해 보았다. 다른 아님 서울·인천·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지역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음을 일컫는 말이다. 얼마 전 통계청은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을 통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보다 14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처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은 1970년 인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기에 이번 인구 전망보고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앞으로 국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겠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권 지역이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 자원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은 대단히 잘못된 불균형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말이다. 이 무슨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지방대학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KD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학 전공과 직업 간의 미스매치 현상은 서인경 지역 대학들의 입학 정원 규제와 학과별 취업 정보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의 총량제를 푸는 것이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지방대학들의 위상은 날로 실추되어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사람이 경쟁력인진대, 이렇게 되면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볼 보다 뻔하다. 도대체 지극처럼 낙후된 우리 지역을 누가 지킬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서둘러 거두어 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요 며칠 사이 우리 남도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참 걱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19와 지역의 기회'라는 연구 보고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지방 소멸을 앞당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본격적으로 커진 3~4월에 수도권 순수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지난해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유출된 인구 네 명 중 세 명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심화될 지역 격차를 예견해 볼 때 광주·전남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이 놓쳐서는 안될 골든 타임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제반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 간의 연대를 통해 대처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社 說

유충은 안 나왔어도 노후 수도권 해결해야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대거 발견된 데 이어 경기·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차례 수돗물 이물질 사고를 겪은 광주 시민들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처음 수돗물에서 발견된 '깎따구 유충'이 2주 가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의 원인으로 지목된 황색탄여과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인천 등 일곱 곳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최근 용연·덕남 정수장 두 곳에서 착수정이나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다형히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깎따구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입증이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은 상수도관의 노후였다. 전체 상수도관 3933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것이 48.2%에 달하고, 30년이 넘는 관로도 14.6%나 된다. 낡은 상수도관은 수돗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는 누수의 주범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수도관 노후화를 방지할 경우 수돗물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노후관 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관광재단 대표 선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에서 관광 분야와는 거리가 먼 지역 언론사 간부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는 전문성은 물론 자질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터여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광주 모 언론사 간부 A씨와 한국관광공사 출신 B씨를 최종 후보자 1, 2순위로 광주시에 추천했다. A씨는 이 지역 출신이고 B씨는 타 지역 출신이다.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언론사 간부인 A씨의 발탁을 염두에 둔 듯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광주에서) 지역 사람을 발탁하면 시끄럽고 뒷말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외지인을 영입하면 오히려 조용하다.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다. 또한 이 시장은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제기

된 특정 인사의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민선 7기와 방향성이 맞아야 하고 혁신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일각에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관광 전문가면 관념에 빠져 기존 틀을 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성보다는 혁신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언론사 간부인 A씨의 발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 언론사 간부는 한때 자신의 저서를 행정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혁신성'과도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A씨가 자신의 저서를 행정기관에 판매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이러한 사실이 일부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다.

광주관광재단 대표는 광주 지역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당연히 전문성과 식견 및 자질을 지녀야 한다. 행정기관을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가진 언론사 간부가 행정기관과 밀착해 한 자리를 얻어 가는 관행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은 이번이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無 等 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처음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방역 당국과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제 '생활 방역'은 습관이 됐다. 방역 수칙은 일상에서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수시로 씻고, 자주 환기하고, 기침 예절도 지켜야 한다. 일상생활과 방역의 조화가 절실하다. 방역 수칙 준수를 마치 생활 습관처럼 일상화해야 한다. 어찌 보면 생활방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 세계가 호평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K(코리아)방역'의 핵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했다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손씻기를 제대로 했을 경우엔 감염이 되지 않았던 사례는 이미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일부 지방 자치단체들은 밀집·밀폐·밀접 등의 3밀 시설 피하기,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QR코드 사용 등 지역에 맞는 생활방역 수칙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러한 생활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생활방역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재유행으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친척·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론선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1년 넘게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생활방역'이란 새로운 일상'이라 언급하며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망을 촘촘히 잘 구축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방역 참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유일한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한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